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7> 종사가 화두를 챙기는 모습

깨달음을 얻은 종사가 참선을 하려는 사람에게 화두 드는 법을 가르칠 적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화두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켜서 이 마음을 모아 화두에 몰입하여 화두를 온전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는 '전제(全提)'이다.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하나로 뭉쳐 모든 분별이 떨어져서, 화두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파병(破病)'이다. 참선을 하려는 사람들이 화두를 들고 공부할 때 나가는 과정에 잘못 생각하여 병통이 생길 때, 이 병통을 고쳐주기 위하여 임시로 그들의 근기와 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알맞은 방안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학인을 지도할 수 있는 종사라고 할 수 있다. <선가귀감> 77장에서 말한다.

本分宗師 全提此句 如人唱拍 紅爐點雪 亦如火電光 學者 實不可擬議也 故 古人知師恩曰 不重先師德 只重先師不為我說破

본분 종사가 몰입하여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모습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과 같으며, 바람에 흩날리던 한 점 눈이 시냇길에 달구어진 용광로에 떨어져내려 금방 녹아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부시들이 부딪칠 때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빛'과 같다. 이 자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동산 양계(洞山良价 807-869) 화상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저는 돌아가신 스승의 도(道)와 덕(德)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저를 위하여 도에 대하여 설

파해 주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종사는 선종의 종지를 체득하여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이다. 부처님 마음에서 훌륭한 방편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종사 스승은 후학들을 다룰 때 그 근기와 주변 상황에 맞추어 눈을 부릅뜨거나 머리를 끄덕이며 때로는 활! 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기도 한다. 주장자로 선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동동이로 매질을 하기도 하며 먹살을 쫓아잡고 쫓박 못 하도록 물어붙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종사의 '본분사(本分事)'이니 '본지

화두와 하나 되어 몰입하는 것 만이 깨달음의 비결 선의 도리 글로만 알려 하면 살아 있는 道 죽일수도

풍광(本地風光)에서 일어나는 임시방편이다.

본분 종사가 몰입하여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모습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과 같다. 화두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킨 턱으로 화두에 마음이 모아져 화두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된다.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하나로 뭉쳐져 화두와 하나가 되어 온갖 시비와 분별이 떨어진 것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박수 치고 노래해도 알음알이가 없으므로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는 것과 같다.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이 사람의 감정이나 의식이 있을 리 없으므로 박수 치고 노래하는 것 또한 정식(情

識)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서 '화두를 챙기는 나'가 사라지고 '챙길 화두'도 사라져 주객이 함께 사라질 때, 이때가 바로 온전하게 화두를 챙기는 자리이다. 화두와 하나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 모든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던 한 점 눈이 시냇길에 달구어진 용광로에 떨어져내려 금방 녹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자리에서 중생의 시비와 분별로써 일어나는 온갖 번뇌가 눈을 깜짝 할 사이에 없어지는 것이, 마치 부시들이 부딪칠 때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빛과 같다. 여기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헤아림도 용납하지를 않으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 자리는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듯이 오직 스스로 체득하여 알 뿐이다.

그러므로 동산(807-869) 스님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저는 스승의 도(道)와 덕(德)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저를 위하여 도에 대하여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동산 스님의 이 말은 '법의 스승'이 되는 운암 선사를 위하여 제(齋)를 올리면서 한 말이다. 운암 선사께서 임종 때 이르러 법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뒷날 강을 건너다 비로소 크게 깨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서주동산 양개선사어록(瑞州洞山良价禪師語錄)을 어록을 보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동산 스님이 운암 스님의 재를 지낼 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화상은 운암 스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분 밑에 있었지만 가르침을 받은 적

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재를 올리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분을 등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상은 처음 남전 스님을 찾아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암 스님한테 재를 올릴 수 있던 말입니까?" "저는 돌아가신 스승의 도와 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분이 저를 위하여 법을 설파해 주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화상이 돌아가신 스승을 위하여 재를 올리는 것은 그 분의 공부를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인정 하지를 않습니까?" "만약 완전히 인정한다면 돌아가신 스승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不道不道 恐上紙墨
더 말하지 말라, 더 말하지 말라, 살아 있는 도가 죽은 문자로 변질될까 두렵구나.

깨달음이란 그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여 그 자리로 몸소 들어가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화두 참구를 하는 수행자라면 오로지 화두에만 몰입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비결이다. 화두를 말로써 알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동산 스님은 운암 스님의 법을 이어 받은 제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암은 법에 대하여 설파하지를 알았다. 동산 스스로 선의 도리를 깨닫게 하였지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글로 해설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선종에서는 말과 지식으로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을 아는 마음과 마음이 맞아떨어지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생명으로 한다. 이것을 모르고 말과 글로 깨달음을 설명하여 알려고 하면 살아 있는 도를 죽일 수도 있다. 선(禪)의 묘한 이 도리를 아는 자야말로 부처님의 세상을 아는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서산 스님은 계속으로 말한다.

箭穿江月影 須是射鵝人
화살이 강물에 떠 있는 달을 꿰뚫으니 독수리를 잡아내는 대장부보다.

원순 스님(송생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9>

업설

세계(世界)란 말에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함께 들어 있다. '세(世)'는 변화하고 유전(流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세계관이다. 과거·현재·미래, 즉 속세(俗世)·현세(現世)·내세(來世)의 삼세(三世)를 뜻한다. '계(界)'는 공간적인 세계관으로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삼계를 뜻한다.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란 각각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업(業)에 따라 치밀한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

가? 업설에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은 선이고 깨달음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이다.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세계란 우연히 존재하며 인간은 그러한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 본다. 인간은 우연한 세계 속에서 본래의 자기한테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의 주체로, 자신의 주제로,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함으로써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실존

불교, 인간의 의지 작용인 업인에 따른 과보 강조 현대상담의 자유 의지 선택 책임론과 일맥상통

미하며, 이의 대응어인 보(報)는 필연적 '반응'을 지칭한다. 이 의지적 작용과 필연적 반응이 각각 심이처를 이루는 육근과 육경의 특질이다. 인간의 의지적 작용 [六根]이 대상 [六境]에 가해지면 대상은 반드시 필연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작용이 인(因)이 되고, 필연적 반응이 결과(果)로 나타나고, 인과 관계를 맺는다. 심이처를 이루는 육근과 육경 사이에 작용·반응의 필연성이 존재함을 관찰하고, 작용·반응의 필연성은 업·보의 인과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인과과보(業因果報)라는 기본적인 법칙이 도출되는 것이다.

주의 상담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운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자유·선택·책임을 강조한다.

현실요법 상담은 선택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인간이란 변질정론적인 존재로, 생존·사랑·힘·자유·재미의 욕구 등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바람(Want)을 이루려는 내면적인 동기로 인해 행동한다고 본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인과과보는 다시 착한 업인에는 착한 과보가 따르고, 나쁜 업인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르는 선인선과(善因善果)·악인악과(惡因惡果)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선·악의 판별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인간의 의지 작용(업인)과 그에 따른 반응(과보)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업설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 책임론을 주장하는 현대 상담 이론은 일맥상통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법사십덕(法師十德)

<화엄경> 십심주 가운데 제9품을 보면 '선제지보살들-보살의 대도를 가는 사람들은 '법사십덕(法師十德)'을 갖추고 법을 항상 펼치는 데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법사의 열 가지 덕이 무엇일까.

첫째 선지법의(善知法義), 법의 뜻을 잘 통달하고 깨달도록 해라. 둘째 능광선설(能廣宣說), 능히 지혜로 부처님 법을 널리 선포하라. 셋째 처중무의(處衆無畏), 대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과감하게 법을 설하라.

넷째 무단번재(無斷辯才), 걸림 없이 말을 잘해 일체법을 설함에 무량겁을 지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다섯째 교방편설(巧方便說),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슬기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하라. 여섯째 법수법행(法隨法行), 법을 잘 따르고 법을 따라서 행동하라. 일곱째 위외구족(威儀具足), 법 따라 사는 사

람들은 행주좌와(行住坐臥) 4위의(威儀) 중에서 위(威)는 두려워하게 하고 의(儀)는 법답게 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여덟째 용맹정진(勇猛精進),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라. 아홉째 신심무권(身心無倦), 몸과 마음에 게으름을 없애라. 열째 성취인력(成就忍力), 어떤 경계라 하더라도 좌(坐) 마음 무생법인을 성취하라.

부처님은 법을 따르는 불자들의 이 열 가지를 모두 갖추면 중생에게 큰 인력을 얻게 하는 법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강지연 기자



그림 : 문병성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목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신국 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滄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